



고조선 중심지이동설 비판

A Critical Review on the Relocation of the Center of Gojoseon

저자 (Authors)	김병기 Kim, Byung-Gi
출처 (Source)	역사와융합 1(1) , 2017.12, 7-43 (37 pages)
발행처 (Publisher)	바른역사학술원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98623
APA Style	김병기 (2017). 고조선 중심지이동설 비판. 역사와융합, 1(1), 7-43.
이용정보 (Accessed)	121.162.211.*** 2018/02/09 16:2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역사와융합』 제 1집(2017. 12)

고조선 중심지이동설 비판

김 병 기(대한독립운동총사편찬위원회)

차 례

1. 머리말
2. 고조선의 위치 문제
3. 중심지이동설의 비판
4. 맺음말

【국문초록】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를 살피는 것은 고조선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대동강중심설, 2) 요하(遼東)중심설, 3) 중심지이동설이 그것이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한국사의 시작이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대동강중심설을 강조하였고, 이는 한국고대사학계의 다수의 주장으로 정착되었다. 요동중심설은 고조선의 도읍지가 요동지역에 있었다는 주장인데, 이익, 박지원 등 조선실학자들과 신채호, 정인보 등 민족주의사학자들이 주장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중심지이동설은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동지역이었으나 후기에는 중국의 세력에 밀려 점차 한반도, 대동강유역으로 이동했다는 논리이다.

종래의 대동강중심설이 1차 사료가 연구되고, 고고학적 발굴이 속속 드러나면서 학문으로서의 근거를 잃게 되자 그 변형논리로 주류학계에서는 중심지이동설을 착안하게 되었다. 이들은 ‘애하 하구(𣶒河 河口)의 기와조각 명문(名紋)’, ‘연진장성(燕秦長城)’ 등의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한 것이다. 따라서 중심지이동설은 조선총독부의 논리인 대동강중심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명목상의 변형 논리일 뿐인 것이다.

(주제어) 고조선, 대동강중심설, 요동중심설, 중심지이동설, 연진장성

1. 머리말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일제 식민사학의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바라보면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식민사학이라고 비판 받아 온 한국 고대사학계는 ‘낙랑군 대동강유역’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위치비정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에서 출발한다. 한사군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시각이 아니라 한사군 설치 당시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사군 설치 당시의 시각이란 서기전 1세기경에 기록된 『사기』, 1세기경의 『한서』, 3세기 후반 『삼국지』같은 중국 고대 사서의 기록을 직접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료에 한사군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가가 1차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 고대사학계에는 두 가지 병폐가 있다. 하나는 스승의 견해에 이견을 달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대에 쓴 1차 사료를 통해 사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학자들과 그의 한국인 제자들이 한국사를 비하하기 위한 시각으로 바라본 고대사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낙랑군은 한사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비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사군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세웠기 때문에 고조선의 중심지 또한 한사군의 중심지와 같다는 것이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조선을 영구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역사를 왜곡했던 조선총독부의 도상(圖上)의 해프닝에 불과하다. 하지만 식민사학계에서는 이미 폐기 처분했어야 할 조선총독부의 ‘낙랑군 대동강설’을 지금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총독부 시절이 아닌 해방 이후에도 이런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랐다. 학계는 도제적인 방식으로 억압한다고 해도 북한과 만주일대는 물론 난하, 갈석 동쪽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조선의 표지유물이랄 수 있는 빗살무늬토기, 비파형동검, 고인돌, 적석총 등 관련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그대로 무시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의 리지린을 비롯해서 국내의 윤내현, 이덕일 같은 역사학자들이 중국의 1차 사료를 바탕으로 고조선과 한사군의 강역이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지금의 요서지역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영역이었다는 사실을 제시하자 고조선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는 이른바 대동강중심설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나온 새로운 변형이론이 바로 ‘중심지이동설’이었다.

그러나 중심지이동설은 조선총독부에서 주장했던 식민사학의 현대판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아왔다. 조선총독부의 ‘대동강중심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변형이론이 아니냐는 의구심이였다. 더 큰 문제는 ‘중심지이동설’에 대한 고고학적 근거로 제시한 ‘애하 하구 출토 기와 명문’이니 ‘연·진 장성설’ 같은 것은 동북공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중국학자들의 무리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이다. 과거에는 일제 식민사학을 추종하더니 지금은 중국 동북공

정을 추종한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1차사료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핵심논거가 모두 무너진 ‘대동강중심설’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중심지이동설’이란 변형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본고는 ‘중심지이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학자들의 논의를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고조선의 중심지 문제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를 살피는 것은 고조선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한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동강유역이 고조선의 중심지였다는 대동강중심설과 만주의 요녕성(요동·요하) 일대가 중심지였다는 요동중심설, 초기에는 요동지역에 있다가 후기에는 대동강유역으로 이동하여 멸망했다는 중심지이동설이 그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 ‘고조선 강역’이라고 표현해야 할 문제를 ‘중심지’라는 말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조선 강역을 한반도 북부로 한정지었던 일제 식민사학의 논리가 도저히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영이겠지만 일단 중심지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겠다.

2.1 대동강중심설

대동강중심설은 고조선의 도읍지가 대동강유역의 평양일대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식민사학을 추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 고대사학계 다수에서 주장했었는데 최근에는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중국에서 적극 주장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대동강중심설은 이른바 ‘기자동래설’에서 시작한다. ‘기자동래설’은 전한

(前漢, 서기전 108~서기 8) 때 편찬된 『상서대전』에 처음 나타나는데, 은(殷)나라 사람 기자가 은나라 멸망 후 주(周)나라 무왕을 섬길 수 없어 ‘조선’으로 망명하였다는 것이다. 기자가 온 조선이 기자조선이라는 것으로, 고려 중기부터 평양에 기자의 사당이 세워지면서 한국사 내로 들어왔는데, 조선후기 사대주의의 유학자들이 소중화(小中華) 사상으로 기자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보기도 했다.

일연도 『삼국유사』에서 “단군왕검은 당고(唐高)가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지금의 서경)에 도읍하여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¹⁾”라고 말했다. 일연은 ‘단군조선’의 도읍지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이후 정확한 구별 없이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중국의 『한서』 ‘조선 열전’은 한나라 초기 고조선의 서쪽 경계를 패수²⁾라고 기록했는데, 이 패수를 대동강으로 오인하면서 고조선의 중심지를 대동강유역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패수’를 한백검은 청천강으로, 정약용은 압록강으로 비정한 것처럼 패수의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었다. 정약용은 고조선의 중심지는 한반도 북부였지만 후에 영토를 확장하여 요서지방을 점령하고 연나라와 국경을 접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약용의 이러한 견해는 만주에 있던 고조선이 한반도로 이동했다는 중심지이동설과는 역방향인 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치윤은 『해동역사』에서, 한진서는 『해동역사속(續)』에서 고조선의 도읍지는 평양이지만 그 강역은 요서지방을 훨씬 넘어선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처럼 실학자들에 의해 고조선의 강역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이 등장했다.

북위사람 역도원(酈道元)이 『수경주(水經注)』에서 ‘패수’에 관해 주석을 잘못 단 것도 대동강중심설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수경(水經)』 원문은 “패수는 낙랑

1) 『삼국유사』 권1 ‘기이제일, 고조선’ 壇君王儉.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唐高卽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

2) 『한서』권95. ‘西南夷兩粵朝鮮傳’ 朝鮮王滿, 燕人. 自始燕時, 嘗略屬真番. 朝鮮, 爲置吏築障.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涇水爲界, 屬燕. 이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패수는 일찍부터 중국과 조선의 국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기』권115. ‘조선열전’)

군 누방현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흘러 임패현을 통과하여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³⁾” 라고 ‘동쪽으로’ 흐르는 강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역도원은 장수왕이 재위 15년(427) 천도한 평양을 고조선 왕함성으로 보고, 패수를 대동강으로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역도원이 북위를 방문한 고구려 사신에게 이에 대해 질문하자 고구려 사신은 “성(고구려의 수도 평양)은 패수의 북쪽에 있다”라고 대답했고⁴⁾, 역도원은 이를 패수가 『수경(水經)』 원문과는 달리 서쪽으로 흐른다고 단정 짓는 근거로 사용했다. 그래서 역도원은 패수에 대해 패수가 동쪽으로 흐른다고 한 『수경』 원문은 잘못된 것이며, 패수는 (고구려 사신들의 말대로) 서쪽으로 흐른다고 주석하였다. 역도원은 서기 전 2세기 경 한나라 때의 패수를 서기 5~6세기 이후의 대동강으로 잘못 인식했던 것에 불과하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대동강중심설을 한국사의 시작을 식민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더욱 체계화시켰다. 일제는 1910년대부터 평양일대에서 중국계 유적과 유물을 발굴했다면서 이를 무조건 ‘낙랑 유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조선사편수회의 이병도 등은 일본인 스승들의 이런 주장을 무조건 신봉하면서 ‘실증’이란 미명 하에 더욱 체계화시켜 나갔다. 해방 후에 이병도, 신석호의 제자들이 한국 사학계의 중추를 형성하면서 ‘대동강중심설’은 최근까지도 통설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동강중심설은 문헌사료는 물론 고고학 사료에 의해서도 반박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삼국지』 「위서동이전」 한조에 인용된 『위략』은, “연나라는 장군 진개를 파견해 조선의 서쪽지역을 침공하여 2천여 리의 땅을 빼앗아 만반한을 경계로 삼았다. 이에 조선이 비로소 약해졌다.”⁵⁾”고 말하고 있다. 연나라

3) 『수경』 14권, ‘패수’ 泃水出樂浪鏤方縣 東南過臨泃縣 東入于海

4) 역도원, 『수경주』 권14, ‘패수’ 余訪蕃使 言城在泃水之陽 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 即樂浪郡治 漢武帝置而西北流.

5) 『삼국지』 권30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魏略曰 …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 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에게 서쪽 2천여 리를 빼앗기고도 만변한을 연나라와 새로운 국경으로 삼았다면 고조선의 영역은 평안도 대동강일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성호(星湖) 이익(李瀾) 같은 실학자들이 이를 부인했던 것이다.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 ‘천지문, 조선사군(朝鮮四郡)’에서 동천왕 때 고구려를 침략한 위(魏)나라 유주자사 관구검이 현도에서 나와서 낙랑으로 물러갔다는 기록을 근거 삼아 현도·낙랑 두 군이 요동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낙랑이 평양이면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평양으로 퇴각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로 역시 ‘낙랑군 평양설’로는 설명할 수 없다. 지금의 북경 부근에서 대군을 출발시킨 수양제의 좌군 제12군은 낙랑을 거쳐 평양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낙랑이 대동강 유역의 평양이라면 이런 명령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고조선의 대동강중심설은 문헌학적이나 고고학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견해⁶⁾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를 장악한 식민사학자들이 최근까지 고조선 왕검성은 평양이라는 대동강중심설을 주장해왔다.

2.2 요동중심설

고조선의 도읍지가 요동지역에 있었다는 주장이 요동중심설이다. 조선 초기 권람은 『응제시주(應製詩註)』에서 낙랑을 압록강 북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자의 건국지는 중국 산둥성 청주(靑州)로 비정하고,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동으로 보았다. 또한 조선 중기 홍여하(洪汝河)는 『동국통감제강(東國通鑑提綱)』에서 진번을 지금의 요녕성 요양(遼陽)에 비정하고, 패수도 한반도가 아닌 만주 요하(遼河)로 비정했다. 그 외에 조선 후기 이익, 박지원, 이규경 같은 실학자들도 요

6) 평양에서 출토된 상당수의 봉니가 위조되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정인보, 『조선사연구』, 서울신문사, 1947, 196~214쪽 참조) 그리고 봉니나 명문기와 등의 연대도 한사군 설치 연대보다 훨씬 후대인 후한 또는 서진시기가 되어 이를 한사군의 유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윤내현, 『한국 고대사신론』, 일지사, 1986, 331~337쪽 참조)

동중심설에 동조했는데, 이는 유학 이데올로기를 넘어 중국 고대사료를 직접 검토해 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학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민족주의 사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신채호를 비롯하여 최남선, 안재홍, 정인보로 이어진다. 그들의 고대사 연구는 단군조선과 부여를 우리 역사의 주류로 삼는 새로운 한국사 체계를 세우는 한편, 만주대륙에서 활동했던 동이족의 역사를 강조하고, 고조선의 중심은 물론 한사군의 위치도 한반도 밖에 있었다고 보았다. 특히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고조선의 강역이 요동, 요서는 물론 중국사서에 등장하는 상곡, 어양, 우북평과 산동일대까지 미쳤다고 보았다.⁷⁾ 또한 만변한을 해성·개평일대로⁸⁾, 왕검성을 험독으로 보아 요동의 개평 동북으로⁹⁾, 패수를 해성부근의 현우락으로 비정했으며¹⁰⁾ 낙랑군을 고구려 남쪽에 있던 낙랑국과 구별하여 요동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는 등 중국사서에 나타난 기록들을 바탕으로 한국고대사의 체계를 한 단계 높였다. 정인보 역시 패수를 해성부근으로 비정했고¹¹⁾, 한사군의 위치에 대하여 진번은 대릉하부근¹²⁾, 현도는 우북평¹³⁾, 낙랑은 요동의 험독¹⁴⁾으로 비정했다.

그러나 중국 고대사료에 근거를 둔 민족사학자들의 이런 역사인식은 해방 후 식민사학자들이 학계를 장악하면서 최근까지 사장되어 왔다. 다만 북한에서는 리지린이 『고조선연구(1963)』에서 진개에게 공격당한 이후의 고조선의 강역을 대릉하까지로 비정한 것처럼 대동강중심설을 극복했었다. 국내에서는 단국대학교 교수 윤내현이 『한국고대사신문(1986)』과 『고조선연구(1994)』 같은 저서에서

7) 신채호, 『조선상고사』,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전집』상, 1972, 97쪽.

8) 위의 책, 101쪽.

9) 위의 책, 103쪽.

10) 위의 책, 103쪽.

11) 정인보, 『조선사연구』상, 연세대학교출판부, 『담원정인보전집』3, 1983, 94쪽.

12) 위의 책, 154쪽.

13) 위의 책, 159~160쪽.

14) 위의 책, 163쪽.

방대한 1차사료를 중심으로 고조선의 강역이 방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최근에는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이덕일이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2009)』에서 다시 한번 고조선의 강역이 광대했음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학자 유 엠 부쥔도 『고조선(이항재/이병두 역, 1990)』에서 고조선의 강역이 방대했다고 바라보았다. 러시아인의 시각으로도 중국 고대사료와 고고학 자료를 살펴보면 고조선의 중심이 대동강유역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러나 ‘요동중심설’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차이가 있다. 패수의 위치에 대해서 북한의 리지린은 대릉하로 보고 있다.¹⁵⁾ 리지린은 만일 패수가 압록강 또는 대동강이라면 위만이 패수를 건너 진(秦)의 고공지(故空地)인 상하장(上下鄕)에 거주했다는 압록강 이남에서 연(燕)나라, 진(秦)나라 및 전한(前漢)시기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¹⁶⁾ 또한 윤내현은 패수를 하북성 난하라고 주장했다.

2.3 중심지이동설

중심지이동설은 조선총독부의 ‘대동강중심설’을 계속 유지하는데 한계를 느낀 식민사학자들이 새롭게 제시한 변형논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결론은 모두 ‘대동강중심설’에 귀착되고 있어서 대동강중심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위장논리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고조선의 강역이 한반도는 물론 만주와 요서지역까지 걸쳐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고대 중국의 1차 문헌사료나 고고학 유물을 근거로 밝혀졌다. 러시아 학자 유 엠 부쥔, 북한학자 리지린, 한국의 윤내현 등이 제시한 고조선의 강역도가 이를 말해준다. 이들은 중국의 고대

15) 리지린, 『고조선연구』(영인본), 열사람, 1989, 88쪽.

16) 더구나 후한시기 고구려에는 많은 한인 망명객과 전쟁포로들이 유입되는데 고구려는 전쟁포로들을 바로 평양에 유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평양일대에서 후한 시기 중국계 유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헌사료는 물론 고조선의 표지유물인 빗살무늬토기, 비파형동검, 지석묘, 적석총, 복식 등의 분포도를 통해 고조선의 영역이 한반도 평양일대의 소국이 아니라 만주의 요서지역까지 이어지는 제국이였다고 밝혀냈다. 그러자 이런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논리가 ‘중심지이동설’이다.

중심지이동설의 요체는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동지역이었으나 후기에는 중국세력이 동쪽으로 진출함에 따라 점차 한반도 서북부지역, 즉 대동강유역으로 이동했다는 논리이다. 결국 대동강유역에 있던 위만조선이 한나라에 망했으므로 한사군은 대동강 유역에 있게 된다는 ‘대동강중심설’의 아류에 불과한 주장이다.

이동설은 먼저 천관우가 『고조선사·삼한사 연구(1989)』에서 주장했는데 기자동래설에 착안한 견해이다.¹⁷⁾ 은나라 사람 기자가 주나라를 거부하고 자신의 세력과 이동했는데 처음 정착지가 난하 하류의 고죽국 근처라는 것이고, 기자가 죽은 후에는 그를 따랐던 나머지 세력들이 이동을 계속하여 평양지역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의 후손들이 평양에 도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천관우는 “나의 견해로는 적어도 만기(晩期) 기자조선(서기전 4세기 이후) 위만조선 낙랑군은 그 중심지가 대동강 하류가 아니고서는 고대사 전체의 체계의 설명이 어렵게 된다고 보고 있다.”¹⁸⁾라고 강변하고 있다. 귀납적 사실의 총합으로서 낸 연역적 결론이 아니라 대동강이라는 결론을 미리 세워놓고 갖다붙인 논리에 불과하다.

이동설은 또 고고학적 발굴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설명되고 있다. 김정배, 김정학, 이형구 등의 견해가 그것인데, 여기에서는 이들 논리에 대한 검토는 지면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문헌연구의 문제점을 주로 다루려고 한다.

17) 김정배, 「고조선의 국가형성」,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4, 78쪽.

18)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 연구』, 85쪽 주, 49).

중심지이동설은 단국대 서영수¹⁹⁾, 서울대 노태돈²⁰⁾, 한국교원대 송호정²¹⁾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고대사학계의 중심이론이 되었다.²²⁾ 중요한 것은 이들의 중심지 이동설은 1차 사료를 근거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고고학적 근거를 토대로 세워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이리저리 나열한 후 결론은 ‘평양설 대동강중심설’로 귀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심지이동설의 가장 큰 쟁점은 고조선 멸망 당시의 도읍지가 현재의 평양인가 아닌가 하는 점인데, 결국 ‘중심설’이라는 한징어 자체가 고조선의 영역은 오늘날 요하 동쪽인 요동까지 이어진다는 말장난 끝에 그 중심지는 평양이고, 그곳이 바로 한사군 낙랑군의 치소(治所)라는 결론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결국 조선총독부에서 체계화한 대동강중심설의 아류이자 변형 논리에 불과하다.

3. 중심지이동설의 비판

주목할 것은 ‘중심지이동설’이 고조선 강역이 광대했다는 1차사료가 속속 발표되고, 만주지역에서 고조선 관련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대동강중심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변형논리라는 점이다. 즉 중심지이동설은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의 현대판 변형이론에 불과하다. 만주지역에 있던 고조선의 도읍지가 후기에는 한반도의 평양지역으로 이동해서 멸망했으니 한사군 설치지역은 결국 대동강유역이라는 ‘대동강중심설’의 아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중심지 이동설의 논리를 살펴보자.

19) 서영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 시민강좌』, 제2집, 일조각, 1988.

20) 노태돈,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0.

21) 송호정,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8, 2010.

22) 본 고에서도 주로 이들 세 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려고 한다.

3.1 대동강중심지설의 논리와 한계

노태돈의 고조선 중심지이동설은 대동강중심설의 한계에 대해 식민사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노태돈 자신이 스스로 밝힌대로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가 계속 보고됨에 따라”²³⁾ 고조선이 한반도 서북부지역, 즉 평양에 있었다는 설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논문은 식민사학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제시한 기본적인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를 평양일대로 전제한다거나, 고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선이었던 패수를 한반도 내부인 압록강으로 보고, 요동군을 현재의 요하 동쪽으로 보는 것 등이 이를 말해준다.

서영수는 노태돈보다 조금 복잡한 논리를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 결론은 항상 같다. 서영수는 고조선의 위치를 “대동강중심설로 보는 것은 비단 일본의 관학자들의 독창적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고려시대부터 이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이러한 견해가 보다 합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오늘날 학계의 통설로 인정된 것이다.”²⁴⁾라고 일제가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주장된 것이었다는 식으로 식민사학 추종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요동중심설 또한 이미 조선시대부터 논의되어 오던 문제이지 1920년대의 민족주의사학자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논리이다. 설혹 서영수의 주장대로 고려 시기 때 주장되었다고 해도 기자 생존 시기보다 무려 2천년도 더 지난 시기에 등장한 이론이면 엄밀한 사료비판을 해야 함에도 서영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반면 요동중심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대한 1차사료적 근거 없는 비난만 가해왔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감정적 논쟁을 지양’

23) 노태돈, 앞의 논문, 3쪽.

24) 서영수, 앞의 논문, 19~20쪽.

하자고 제안한다. 서영수의 논문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의 ‘머리말’에서는 이러한 속내들이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에 북한이나 만주지역에서의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성과가 계속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 따라서는 고조선의 위치나 강역의 문제가 보다 확실하게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남겨진 자료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다면 오히려 고조선사는 과거보다 더욱 혼미해 질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감정적 논쟁을 지양하고, 남겨진 자료를 체계화하는 동시에 엄밀한 사료비판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²⁵⁾

서영수는 위의 머리말에서 “남겨진 자료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다면 … 더욱 혼미해 질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자료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당사자들이 바로 일제 식민학자들이자 이병도이고 그 자신들이었음은 은폐하고 오히려 타인이 그런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감정적 논쟁을 지양하고”라는 말했는데, 그간 자신들과 견해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학계에 있던 학자들에게까지 ‘재야(在野)’라고 비하했던 행태에 대해 자성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엄밀한 사료비판을 통해”라는 말까지 썼는데, 그간 ‘엄밀한 사료비판에 의한 검증’을 거부했던 것이 누구인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서영수가 같은 대학교 교수였던 윤내현에 대해서 비판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서영수의 태도를 살펴보자. 그는 윤내현의 논문에 대해서 ‘연구를 도출한 사료해석에 비약이 심한 것으로 보여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윤내현)는 리지린의 난하 요수설을 따르는 동시에 패수, 열수를 모두 난하로 본 까닭에 『사기』의 기사를 설명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라고

25) 서영수, 위의 논문, 20쪽.

비판하고, ‘그는 연장(燕將) 진개(秦開)가 서쪽으로 2천리를 쳐서 경계로 삼았다는 만변한도 진개의 출발지점에 가까운 난하 근처에 두었다. 『위략』과 『엄철론』의 표현으로 보아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임은 분명하다.’라고 비판하고, ‘그의 역사 지리 연구가 대체로 중국의 동방 주군(州郡)이 서쪽으로 이치된 이후에 기록된 후대의 주석 자료와 원사료를 구별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사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도 비판했다.²⁶⁾

그러나 ‘엄밀한 사료비판’은 팽개치고 ‘남겨진 자료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일체의 사료적 근거가 없는 허황된 ‘고조선중심지 이동설’을 주장한 것은 서영수 자신이었으며, “불필요한 감정적 논쟁”으로 아무런 1차사료적 근거를 대지 못하고 윤내현을 비난한 것도 서영수 자신이었다. 서영수가 주장하는 요동의 위치, 패수의 위치, 낙랑군의 성격, 양평의 위치 등은 모두 1차사료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남겨진 자료의 자의적 확대 해석’에 불과하다.

서영수고, 노태돈이고, 송호정이고 그 공통된 특징은 1차사료를 통한 근거제시는 없고 일방적 주장만 있다는 점이다. 노태돈과 서영수가 만든 중심지이동설이 아무런 사료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고고학으로 이를 포장해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송호정의 논리이다. 송호정은 고조선에 관한 중국의 문헌사료인 『사기』 「조선열전」, 『삼국지』 「오환선비동이 전」에서 인용한 『위략』과 『관자』, 『산해경』, 『전국책』등을 장황하게 열거한 다음 “구체적으로 조선이라는 실체가 언제부터 역사에 등장하였고, 그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문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조선과 관련된 지역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출토되는 유적·유물을 통해 가늠할 수밖에 없다.”²⁷⁾라고 주장했다. 과거 같이 자신들이 학계를 모두 장악하고 있으면 아무 관련 없는 문헌사료를 나열해 놓고 ‘고조선은 평양일대에 있었던 소국(小國)이었다’라고 썼겠지만

26) 위의 논문, 32~34쪽 참조.

27) 송호정, 앞의 논문, 28쪽.

이제 그런 수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으니 고고학으로 도망간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정확하게 ‘고조선중심지 이동설’로 귀결된다. 송호정은 “이 주장(중심지이동설 필자)은 종래의 평양중심설과 요동중심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위략』 등 문헌 사료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요녕식 동검 등 고고학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²⁸⁾고 서로 띄워주고 있지만 아무런 1차사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송호정은 “고조선의 초기 단계를 가리키는 단군조선과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국가권력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지배층 사이에서 만들어진 건국신화이지 실재한 역사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군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단군을 부인함으로써 한국사의 시작을 부정했던 조선총독부의 주장과 복사판인 것을 알 수 있다. 고조선사 전공자라는 학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고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선총독부와 같은 것이다.

나아가 송호정은 “기원전 7~6세기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선진문헌에는 연과 세력을 다투는 군소종족으로 산융(山戎)을 중심으로 영지(令支) · 고죽(孤竹) · 도하(屠何) 등이 보인다. 이 종족들은 기원전 8~7세기를 전후한 춘추시대 초 · 중기에는 세력이 상당히 강성하여 ‘연을 병들게 하거나, 산융이 연을 넘어 제나라를 정벌하자 제(齊)의 희공(釐公)이 교외에서 맞아 싸웠다’는 등의 상황을 초래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고조선이라고 설명해야 할 부분에 산융, 동호 등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는 중국 동북공정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다.

28) 송호정,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31쪽.

3.2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

노태돈은 그의 논문에서 먼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에 대해 거론하면서 그 근거 자료로 역도원의 『수경주』를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A) 패수는 낙랑군 누방현을 나와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²⁹⁾

B) 서한 무제 원봉 2년(서기전 109)에 누선장군 양복과 좌장군 순체를 파견하여 우거를 토벌하였는데 패수에서 우거를 격파하여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만약 패수가 동쪽으로 흘렀다면 위만이나, 양복, 순체가 패수를 건넌을 수가 없다. 그 지역은 지금의 고구려 읍치(도읍)였다. 그래서 나는 고구려 사신을 방문하여 물어보았더니 그가 말하기를 “고구려 도성이 패수의 북쪽에 있다.”라고 하였다. 그 강은 서쪽으로 흘러 옛 낙랑군 조선현을 지난다. 조선현은 낙랑군의 치소로서 서한의 무제가 설치한 것이다. 패수가 서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한서』 「지리지」에 말하기를 패수는 서쪽으로 증지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고 한나라가 일어났으나 조선이 멸기 때문에 요동의 옛 요새를 다시 수리하고 패수에 이르러 경계를 삼았다고 하였다. 근래에 고구려 사신으로부터 들은 것과 옛 기록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수경』의 기록은 사실과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수경』이 잘못 고증한 듯하다.³⁰⁾

한반도에는 『수경』에서 말하는 대로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가는 큰 강이

29) 『수경』 ‘패수’ 泚水出樂浪鏤方縣，東南過臨泚縣，東入於海。

30) 역도원, 『수경주』 ‘패수’ 漢武帝元封 年，遣樓船將軍楊仆、左將軍荀彘討右渠，破渠於泚水，遂滅之。若泚水東流，無渡泚之理。其地今高句麗之國治。餘訪番使，言城在泚水之陽，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即樂浪郡治，漢武帝置，而西北流。故《地理志》曰：泚水西至增地縣入海。又漢興，以朝鮮為遠，循遼東故塞，至泚水為界。考之今古，於事差謬，蓋《經》誤證也。

없다. 낙랑군을 현재의 대동강 일대로 비정하려는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이병도에³¹⁾ 패수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는 기록이 걸렸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원 사료가 오류라고 주장하는 식민사학의 습성대로 이병도는 『수경』 원저자의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동(東)’은 ‘서(西)’의 오류라고 했다.³²⁾ 옛날 같으면 이런 방식이 통했겠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노태돈은 “(A) 기사의 올바른지 여부와 패수가 어느 강이냐는 일단 뒤로 미루어 두고³³⁾” 라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마음대로 원 사료를 곡해하기는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병도처럼 『수경』 원문을 버리고 『수경주』로 돌아간다. 노태돈은 역도원이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성을 위만조선의 왕험성으로 착각했다는 단순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수경주』의 잘못된 주석을 근거로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는 분명한 것이 된다.’고 확증하였다. 노태돈은 “5세기말 6세기초에 북위를 방문하였던 고구려 사신의 견해로 볼 때,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는 분명한 것이 된다. 이때의 패수는 대동강을 가르킨다는 데에 대해선 이론(異論)이 없다.”³⁴⁾라고 식민사학 특유의 우기기를 동원한다. 그 자신이 패수는 압록강이라고 비정해놓고도 ‘패수 대동강’이라고 또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론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으니 그 자신이 패수를 압록강으로 비정

31) 일찍이 이병도는 평남 대동군 대동강변 토성리에 자리한 토성을 위만조선의 왕검성이라 하고, 그곳을 한무제가 설치한 낙랑군 조선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설은 1913년 일인학자 세키노(關野貞)가 만들어낸 허구이다. 세키노는 ‘망명 · 포로한인’들의 수용소 혹은 거주지로 보이는 토성을 위만조선의 왕검성으로 꾸밀 때의 광경을 자신이 자세히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즉 “대정2년(1913) 9월 23일 대동강변의 토성을 답사하였다. 과연 토축의 성벽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漢式의 瓦片 십 수개를 채집하였다. 30일, 우리는 평안남도 내무부장 篠田治策씨와 함께 평양세관의 小汽船을 타고 대동강을 流下하여 신발견의 토성을 보고, 다수의 한식 외당을 채집하였다. 이 지점이 낙랑군시대의 고분 산포지역의 중심점에 위치한 것, 강변의 풍경이 아름다운 勝地인것, 漢 대의 양식을 가진 다수의 기와 파편과 벽돌조각을 얻은 것 등의 事로써 이곳이 한 대 낙랑군의 치소였다고 推想하고 의외의 발견에 크게 기뻐하였다. (『낙랑군시대의 유적』, 『고적조사 특별보고서』 제4호, 1927년 3월 조선총독부 발행, 문정창, 『한국고대사연구 평』, 백문당, 1976, 48~49쪽에서 재인용)

32) 이병도, 「패수고」, 『청구학총』 제13호, 131쪽.

33) 노태돈, 앞의 논문, 6쪽.

34) 위의 논문, 6쪽.

한 것은 ‘이론’ 축에도 못 든다는 말인가? 이른바 ‘고조선중심지 이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3.3 고고학 출토 유물

3.3.1 애하(愛河) 하구 출토의 기와편 명문 「안평낙미양(安平樂未央)」문제

1976년 압록강의 지류인 애하 하구의 삼각주 상의 유적에서 ‘안평낙미양(安平樂未央)’이라고 쓴 기와편이 발견되었다. 한(漢) 대의 것으로 비정한다는데, 노태돈은 이 기와편에 대해서 “이 명문의 ‘안평(安平)’은 지명이고 ‘낙미양(樂未央)’은 한(漢) 대에 흔히 쓰였던 길상구(吉祥句)이다. 이 와당이 출토된 지점은 곧 한 대의 요동군 서안평현의 유지임을 말해준다.”³⁵⁾라고 주장했다. 서(西)자는 어디로 갔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안평’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서안평과 같다고 우기는 것이다. 그나마 그것도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중국학자 조신(曹汛)의 글³⁶⁾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노태돈의 결론은 “이렇듯 한 대의 요동군이 오늘날의 요동 지역에 있었고, 그 속현인 서안평현이 압록강 하류지역에 있었다면, 자연 요동군의 동편에 있었던 낙랑군은 한반도의 서북부에 위치하였음이 분명해진다.”³⁷⁾라고 단정 짓고 있다. 앞부분은 ‘있었다면’이라고 조건부로 말해놓고는 결론은 ‘분명해진다’라고 결론짓는 자기모순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병두가 말했듯이 여기에 보이는 안평(安平)은 지명이 아니라 길상구(吉祥句) 류의 하나이다.³⁸⁾ 미양(未央)이라는 말은 아직 정상에 이르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로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으로 장락(長樂)이나 안락(安樂)과 같은 길상구인 것이다.

안평을 서안평현이라고 확대해석해서 서안평을 단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35) 노태돈, 앞의 논문, 8쪽.

36) 曹汛, 「愛河尖古城和漢安平瓦當」, 《考古》1980년 6기.

37) 노태돈, 앞의 논문, 8쪽.

38) 李秉斗, 「요동 · 현도군의 위치」, 백산학회편, 『고조선 · 부여사 연구』, 백산자료원, 1995, 197쪽 참조.

병도의 자기마음대로 위치비정을 따른 것이다. 『요사』 「지리지」에서 지금의 내몽골 파림좌기인 요나라 상경 임황부를 한나라 때 요동 서안평이라고 쓴 것³⁹⁾을 무시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서안평을 찾으려면 ‘안평’자가 나온 와당의 출토지 서쪽에서 찾아야 하는 것도 모른 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레놓고는 “요동군의 동편에 있었던 낙랑군은 한반도 서북부에 위치하였음이 분명하다.”라고 결론지으니 그 논리의 궁색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3.3.2 평양 토성동 일대의 봉니 문제

평양일대에서 출토된 봉니는 주류사학자들이 평양일대를 낙랑군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다. 노태돈 역시 봉니에 대해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서의 도착 지점이 아니라 발송처인 군치(郡治)에서 봉니가 집중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봉니가 문서의 발송 뿐 아니라 보관에도 사용되었음을 지적하고 한 대의 다른 군치에서도 그 군의 태수의 봉니가 출토된 예를 지적한 견해는 의미를 지닌다.”⁴⁰⁾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른바 ‘낙랑 봉니’가 출토된 지역이 곧 낙랑군이라는 설이다. 그러나 일찍이 정인보는 평양에서 출토된 상당수의 봉니가 위조되었다는 것과 조목조목 밝혔으며,⁴¹⁾ 또 윤내현은 봉니나 명문기와 등의 연대도 한사군 설치 연대보다 훨씬 후대인 후한 또는 서진시기 것으로서 이를 한사군의 유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⁴²⁾ 또한 북한 지역에서 해방 전 봉니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곳과 다른 여러 지역을 집중 발굴했지만 단 한 점의 봉니도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외면하고 있다. 또한 1997년 요녕성 금서시 연산구의 옛 성터에서 ‘임둔태수장’이 수습된 것도 무

39) 『요사』 「지리지, 상경도」 上京臨潢府 本漢遼東郡西安平之地 新莽曰北安平. 서안평은 현재 내몽골 파림좌기 부근이며 미천왕이 서쪽의 현도, 낙랑을 공격할 때 지나던 루트가 된다.

40) 노태돈, 앞의 논문, 10~11쪽.

41) 정인보, 『조선사연구』, 서울신문사, 1947, 196~214쪽, 윤내현 『한국고대사신론』에서 재인용.

42) 윤내현, 『한국고대사신론』, 일지사, 1986, 331~337쪽.

시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를 계승한 식민사학계는 임둔군을 현재의 함경남도과 강원도 북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요녕성 서쪽에서 임둔태수장이 나온 것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3.4 연·진 장성의 동단(東端)문제

일체의 문헌사료가 부족하고 고고학 사료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게 되자 근래에는 이른바 ‘연·진 장성’이란 허황된 논리에 기대고 있다. 노태돈은 연·진 장성의 동단에 대해서 요동설, 낙랑군 수성현설, 요서설 등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결론은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중국학자들의 견해⁴³⁾를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노태돈의 논문을 살펴보자.

요령성지역의 장성 유지는 두 개의 줄기를 이루며 동서로 길게 뻗쳐있다. 북쪽 성벽의 유지는 화덕현 동쪽에서 영금하 북안을 거쳐 적봉, 오한기, 고륜의 남쪽 등을 거쳐 부신현 동쪽에 이르며, 남쪽 성벽은 객나심기와 적봉 남부를 거쳐 노합하를 넘어 건평현 북부와 오한기 남부를 지나 북표현에 이른다. 능선을 따라 전개되어 있는 긴 성지의 자취는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그리고 장성의 자취가 이어지는 군데군데에 요새가 존재하였고 그곳에서 연, 진, 한 대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⁴⁴⁾

마치 두 줄기 뻗쳐있는 연·진 장성의 실물을 대하듯이 묘사하고 있는 위의 글은 중심지이동설을 주장하는 주류사학자들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

43) 李殿福, 「東北境內燕秦長城考」, 《黑龍江文物叢刊》 82 1

劉謙, 1982 「遼東長城考查」, 《遼寧大學學報》 82 5

遼寧省長城學會, 1996 「遼寧長城」, 瀋陽

44) 노태돈, 앞의 논문, 12쪽.

두르는 단골 메뉴이다. 그런데 “능선을 따라 전개되어 있는 긴 성지의 자취”가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면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군데군데 존재하는 요새”를 무슨 근거로 연·진 장성의 요새로 단정 짓는지 그 근거로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동북공정을 진행하는 중국학자들의 논리를 무조건 추종하는 이유도 밝혀주기 바란다. 노태돈은 “이는 대구모 토목공사에 의해 원거리에 걸쳐서 축조된 장성의 유지로 보아야만 한다.⁴⁵⁾”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사기』에서 전하는 연·진 장성의 동단이 오늘날 요하선에 이르렀음은 실물유적을 통해 확인되는 바이다. 따라서 연·진대의 장성이 요서의 갈석산에 이른다는 설과 그것을 전제로 한 낙랑군 및 고조선의 중심지의 위치에 대한 비정은 부정된다⁴⁶⁾”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식민사학에는 불리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지극히 유리한 ‘사기」「하본기」주석의 『태강지리지』에 나오는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으며 만리장성이 시작된다”⁴⁷⁾는 1차사료를 부인하면서 ‘연·진 장성이 갈석산에 이른다’라는 윤내현의 설⁴⁸⁾을 부정하는 것이다. 윤내현은 몽염이 축조한 진나라 만리장성이 갈석까지 이르렀으며, ‘진 장성의 동단이 원래의 연 장성이었다’라는 내용을 『진서」「지리지」「사기」「몽염열전」「사기」「진시황본기」「사기」「흉노열전」「후한서」「원소유표열전」과 그 주석 등의 1차 사료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⁴⁹⁾ 노태돈은 이런 1차 사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허황된 ‘연·진 장성’을 근거로 모두 부정하고 있는 비학문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실물유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1차 사료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황된 ‘중심지이동설’을 유지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45) 위의 논문, 12쪽.

46) 위의 논문, 12~13쪽.

47) 『史記』「夏本紀」: 太康地理志云「樂浪遼城縣有碣石山, 長城所起

48) 윤내현, 앞의 책, 312~314쪽 참조.

49)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222~231쪽 참조.

수행하는 중국의 어용학자들이 고안한 ‘연·진 장성’에 목을 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연·진 장성은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중국의 어용학자들이 고안한 이론일 뿐 아무런 실체도 없다.

만약 연·진 장성이 사실이라면 무슨 이유로 쌓았던 것일까? 명나라 때 산해관까지 만리장성을 쌓은 것은 중국의 동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동·서 방향으로 두 줄기 쌓았다는 연·진 장성의 남쪽지역은 발해로 흐르는 요하, 대릉하 등 이른바 구하(九河)라고 불리는 물줄기가 연속되는 늪지대이다. 당 태종이 안시성에서 퇴각하면서 고전하던 최대의 늪지가 이곳인데, 과연 이런 지역을 지키기 위해 동·서 방향으로 원거리의 장성을 쌓았다는 말인가? 습지를 지키기 위해 원거리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다는 것인가? 백 번 양보하여 연·진 장성의 실체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 막대한 비용과 이를 지킬 수많은 군사는 어떻게 유지시켰는가? 한마디로 허황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고구려는 모본왕 2년(서기 49) 북평·어양·상곡과 태원을 공격하였고⁵⁰⁾, 태조왕 3년(서기 55)에는 요서지역에 10개의 성을 쌓아 한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였다는⁵¹⁾ 기사가 나온다. 성을 쌓은 것은 고구려였다.

노태돈은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에서 『진서』 「지리지」와 두우(杜佑)의 『통전』을 장황하게 인용하면서 “진 장성이 수성현에 미친다는 기록은 『태강지리지』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진(秦)의 세력이 한반도의 서북부 깊숙이 뻗었던 것이 된다.⁵²⁾”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진 장성의 축조 목적에서 볼 때 … 낙랑군 수성현 지역에 까지 진이 장성을 축조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키 어렵다.⁵³⁾”라고 횡설수설했다. 수성현은 지금의 하북성

50) 『삼국사기』권제14, ‘모본왕본기’ 年 春 遣將襲漢北平漁陽上谷太原 而遼東太守蔡彤{蔡彤} 以恩信待之 乃復和親

51) 『삼국사기』권제 15, ‘태조대왕본기’ 三年 春 月 築遼西十城 以備漢兵

52) 노태돈, 앞의 논문, 14쪽.

53) 위의 논문, 15쪽.

창려현 일대에 있었는데 진 장성이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진(秦)의 세력이 한반도의 서북부 깊숙이 뻗었던 것’이 되는가? 그래놓고는 왜 ‘낙랑군 수성현 지역에 까지 진이 장성을 축조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키 어렵다’라고 횡설수설하나? 결론은 조선총독부와 이병도가 만들어 놓은 식민사학을 추종하다보니까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호정은 연·진 장성의 유적에 대해 더욱 확고한 주장을 펼친다.

특히 연·진 장성의 위치는 요녕성 북부일대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 끝으로 되어 있는 양평(襄平)은 현재의 요하 이동의 요양(遼陽)으로 비정되고 현재 장성 유적 또한 요하일대까지 나온다고 한다. 현장답사 결과 연·진 장성은 요서지역에서 그치고, 요하 일대는 보루나 초소 형태의 시설이 존재한 것으로 이해된다.⁵⁴⁾

송호정은 ‘연·진 장성’의 실체를 파악하면 고조선의 강역을 부인할 수 있으리라 하는 떨리는 가슴으로 현장답사를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데, ‘요녕성 북부일대’ 어디에 ‘연·진 장성’의 ‘뚜렷한 흔적’이 있는지 구체적 지명을 좀 가르쳐주기 바란다. 또한 요하 일대의 어떤 ‘보루’나 ‘초소’가 있으며, 설혹 있다한들 그것들을 무슨 근거로 2천년도 훨씬 전의 ‘연·진 장성’으로 확인했는지 그 근거도 좀 밝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의 시각으로 한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자문해보기 바란다.

54) 송호정, 앞의 논문, 52쪽.

3.5 위치 비정 문제

3.5.1 왕검성의 위치

일제강점기 이래 식민사학자들은 낙랑군을 현재의 평양일대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병도를 거쳐 현재 한국 사학계의 중추를 이루는 식민사학계에서 하나뿐인 정설이라고 강변해왔다. 노태돈은 “왕검성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평양지역인 만큼 역시 평양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⁵⁵⁾라는 비학문적 희망사항을 피력한 후 “왕검성은 대동강 북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⁵⁶⁾ 주장하고 있다.

고조선의 도읍지로 알려진 왕험성은 이병도의 스승인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가 패수를 대동강으로 전제하고 대동강 남쪽에 있는 토성동의 토성을 조선현의 치소라고 비정한 데서 시작되지만⁵⁷⁾ 식민사학의 대부분의 논리들이 그렇듯이 아무런 문헌적 근거가 없다. 이 경우 고고학이 전가의 보도로 악용된다. 대동강 남안에서 ‘한식와편(漢式瓦片)과 벽돌 그리고 고분’ 등을 발견했다면서 이 지역을 낙랑군의 치소라고 주장한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사기』 「조선열전」에서 ‘연나라 사람 위만이 동쪽으로 새외(塞外)를 나와 패수를 건너 왕험성에 도읍했다’⁵⁸⁾라는 문헌 기록에 꿔맞춰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를 대동강 남안으로 비정한 것이다.

서영수 또한 “누구나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사기』의 왕험성(王險城)은 패수 이동 진고공지(秦故空地) 이남에 있었던 위만조선의 도읍지로, 『한서』 「지리지」의

55) 노태돈, 앞의 논문, 22쪽.

56) 위의 논문, 23쪽.

57) 稻葉岩吉,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史學雜誌』 第 21 篇 第 2 号

58) 『사기』 권115 ‘조선열전’ 朝鮮王滿者, 故燕人也。自始全燕時嘗略屬真番、朝鮮, 為置吏, 築鄣塞。秦滅燕, 屬遼東外徼。漢興, 為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涓水為界, 屬燕。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涓水, 居秦故空地上下鄣, 稍役屬。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 都王險。

낙랑군 조선현이 분명하다.⁵⁹⁾”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다. 서영수는 패수는 요동에 위치했다면서도 위만조선의 중심지를 요동이나 난하 동쪽에서 찾는 북한의 리지린이나 윤내현의 견해는 비판하면서⁶⁰⁾ 평양이 왕험성이라고 횡설수설하고 있다. 21세기에 조선총독부의 결론에 맞추려니 앞뒤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횡설수설하는 것이다.

송호정도, “평양부근에 고조선 왕검성이 있었고, 그 뒤에 낙랑군이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⁶¹⁾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왕검성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평양지역인 만큼 역시 평양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다.” 라면서 조선총독부의 결론을 그대로 반복한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를 평양으로 미리 전제하고 입을 맞춰가는 것이다.

3.5.2 패수의 위치

노태돈은 패수는 난하설, 대릉하설, 압록강설, 청천강설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가운데 윤내현의 난하설과 이지린의 대릉하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⁶²⁾ 앞에서 살펴본대로 ‘연 · 진장성이 오늘날의 요하에 이르렀다’는 허황된 전제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연 · 진의 요동군은 요하 동쪽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펼치는 주장이다. ‘연 · 진 장성’이 근거가 없다면 노태돈의 모든 주장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노태돈은 스승인 이병도가 주장하는 ‘패수가 청천강’이라는 설을 고고학적 출토 유물을 장황하게 열거하면서 설명해놓고는, 정작 자신은 패수를 양평과 청천강 사이의 강이라면서 현재의 압록강이라고 비정했다.⁶³⁾ 『한서』지리지 ‘현도군 서개마현’의 “마자수가 서북쪽으로 염난수에 합류하고 염

59) 서영수, 앞의 논문, 45쪽.

60) 위의 논문, 31~34쪽.

61) 송호정, 앞의 논문, 53쪽.

62) 노태돈, 앞의 논문, 26쪽.

63) 위의 논문, 29쪽.

난수는 서남으로 흘러 서안평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⁶⁴⁾”는 기사 가운데 염난수를 혼강(渾江)으로, 마자수(馬訾水)를 압록강으로 자의적으로 비정하면서도 마자수가 흐르는 방향이 서북(西北)이 아닌 서남(西南)의 착오라고 식민사학 특유의 1차사로 방향바꾸기를 동원한다⁶⁵⁾. 마자수를 현 압록강으로 비정하려면 압록강이 서남으로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논리라고 하기에다 낮부끄러운 삼류소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식민사학계의 논리와 폐단이란 이런 것이다.

한편 서영수는 고조선이 한반도로 이동하기 전에는 그 서쪽 강역이 대릉하(大凌河)유역이었다면서⁶⁶⁾ 전향적으로 보는 척 흉내를 냈다. 서영수의 경우 고조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사기』 「조선열전」의 기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의 사료를 열거하고 있다.

조선왕 만(滿 위만)은 옛날 연(燕)나라 사람이다.

(A)연나라의 전성기에 처음으로 진번,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장새(鄕塞)를 쌓았다.

(B)진(秦)이 연을 멸한 뒤에는 요동의 외요(外徼)에 소속시켰는데,

(C)한(漢)이 건국하여서는 그곳(요동외요)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의 고새(故塞)를 수리하고 패수(溟水)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삼아 연(漢의 侯國)에 부속시켰다.

(D)연왕 노관이 흉노로 도망갈 때에 만도 망명하였는데, 동쪽으로 요새를 나와 패수를 건너 진의 옛 공지(空地)에 있는 상하장(上下鄕)에 살면서 점차 진번(眞番)과 조선(朝鮮) 오랑캐 및 연·제(燕·齊)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거느리

64) 『한서』지리지 ‘현도군 서개마현’ 馬訾水西北入鹽難水西南至西安平入海

65) 노태돈, 앞의 논문, 30쪽 주, 68).

66) 서영수, 앞의 논문, 42쪽.

고 …

(E)(고조선의 준왕을 처서) 왕이 되었으며, 왕험(王險)에 도읍을 정하였다.

(F)… 진번(眞番), 임둔(臨屯)이 모두 와서 복속하였다.⁶⁷⁾

즉 “사료 (A)에서 연이 복속시켰다는 조선은 고조선 전체가 아니라 고조선 영토의 일부이며, 이로부터 거꾸로 추정하면 서기전 3세기 이전 고조선의 강역은 대체로 서쪽으로 대릉하유역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 서 결론은 늘 대동강유역으로 이동했다는 ‘대동강중심설’로 내려진다.

송호정도 노태돈처럼 패수를 압록강으로 보았는데⁶⁸⁾, 노태돈처럼 ‘안평낙미양(安平樂未央)’ 명문 와당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⁶⁹⁾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중국인 학자의 논문이 이른바 ‘중심지이동설’을 주장하는 한국인 학자들에게는 복음이었다. 송호정은 “『사기』 「조선열전」에는 고조선과 경계로 된 패수가 이전에는 청천강(淸川江)이었는데 한대(漢代)에 와서 요동고새(遼東故塞)와 그 옆에 있는 압록강(鴨綠江)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⁷⁰⁾”라고 패수의 위치가 청천강과 압록강을 오락가락 하고 있다. 그 자신의 근거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5.3 만번한(滿潘汗)의 위치

노태돈은 그의 논문에서 『위략』에 의하면 ‘고조선은 연나라에게 그 서쪽 영토 2천여리를 상실하고 만번한으로 경계를 삼았다’는 기록을 소개하면서 만번한을

67) 『사기』권115. ‘조선열전’ 朝鮮王滿者, 故燕人也。自始全燕時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秦滅燕, 屬遼東外徼。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涓水爲界, 屬燕。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涓水, 居秦故空地上。下鄣, 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 都王險。… 眞番、臨屯皆來服屬, 方數千里

68) 송호정, 앞의 논문, 55쪽.

69) 위의 논문, 53쪽.

70) 위의 논문, 56쪽.

『한서』 「지리지」에 의거하여 요동군 속현인 문현(汶縣)과 번한현(潘汗縣)으로 비정하고 있다.⁷¹⁾ 노태돈은 “한대의 요동군과 낙랑군의 경계가 청천강이었고, 연(燕)과 후기 고조선의 경계도 청천강이었으니 자연 만번한 즉 문·번한 두 현의 위치도 청천강유역 언저리에서 일단 찾아야 될 것 같다.”⁷²⁾고 주장하고 있다. 요동군을 한반도 내까지 끌어들이는 것으로서 일본인 식민사학자들보다 더 한 망설이다. 그러면서도 결론 부분은 모호하다. 노태돈의 논리를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요동지역 중 어느 곳이 고조선의 중심지였는가를 살핌에 있어서, 서기전 3세기 초 고조선과의 첫 충돌에서 연군(燕軍)의 진출선(進出線)인 만번한은 문·번한의 두 현을 연칭(聯稱)한 것으로서, 오늘날의 개평현과 해성현 서남쪽을 포괄하는 지역이 그것이었다. 이 만번한 지역은 고조선의 중심부이었거나 중심지의 동쪽 외곽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즉 서기전 4세기 이전의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는 개평현과 해성현 서남쪽을 포괄한 지역 어느 곳이었다고 여겨진다.⁷³⁾

만주의 개평현과 해성현 일대에 있던 만번한이 고조선의 국경이었다가 청천강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인데 비파형동검문화 유적의 출토 유물의 특성에 따른 견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비파형동검문화 유적의 어떤 점 때문에 청천강으로 이동했다고 보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저 자신을 추종하는 학자들이 일반인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논리일 뿐인데.

서영수의 경우 앞에 제시된 사료를 통해 요동과 만번한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료 (D)의 ‘진고공지(秦故空地)’를 단순히 진과 고조선의 완충지대가 아

71) 노태돈, 앞의 논문, 49쪽.

72) 위의 논문, 49쪽.

73) 위의 논문, 55쪽.

나라 진의 요동외요(遼東外徼)에서 관할하는 지역으로 보았다. 그런데 서영수는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한 후 연의 동쪽 경계인 요동의 만번한에 있었다는 천산산맥을 넘어 1백여 리의 고조선 영토⁷⁴⁾까지 잠식하고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했다고 주장했다.⁷⁵⁾ 진나라가 지금의 압록강유역까지 진출했다는 1차적 문헌사료는 당연히 없다. 아마 전 세계 역사학계에서 단 하나의 1차사료도 없이 이렇게 자국에 불리하게 주장하는 경우는 지금은 물론 유사 이래 없었을 것이다. 서영수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서영수는 후대의 요동군치가 되는 양평(襄平)의 위치를 오늘날 요하의 동쪽에 있는 요동군의 군치(郡治)로 이해하고 있다.⁷⁶⁾ 그런데 사마천은 『사기』 「흉노열전」에서 연의 장성이 조양(造陽)에서 양평(襄平)에 이르렀다고 말했고,⁷⁷⁾ 『사기』 「몽염열전」에서는 장성이 임조(臨洮)에서 요동(遼東)에 이르렀다고 기록하였다.⁷⁸⁾ 즉 장성의 동쪽 끝을 요동 또는 양평이라고 한 것인데 이 두 곳은 같은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식민사학자들은 고대의 요동과 현재의 요동이 다르다는 전제를 무시하고 오늘날의 요동으로 마음대로 비정하고, “만약 이 요동이 오늘날의 요동지역이면, 자연 낙랑군은 그 동쪽인 한반도의 서북부가 된다.”⁷⁹⁾라고 낙랑군을 평양으로 비정했다. “만약 이 요동이 오늘날의 요동지역이 아니라면, 자연 낙랑군이 그 동쪽인 한반도의 서북부가 된다는 것은 모두 헛소리가 된다”로 고칠 수 있는 것이다.

74) 여기서 ‘1백여 리의 고조선 영토’란 고조선의 준왕이 망명해온 위만에게 1백리의 땅을 봉해 주고 고조선의 서쪽 국경을 지키게 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연을 멸한 진나라는 그 땅을 차지하여 고조선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75) 서영수, 앞의 논문, 42쪽.

76) ‘요동’이라는 개념을 대부분 오늘날의 요하 동쪽만을 말하는데 요동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기 때문에 요동이라는 말은 시대마다 다른 지역을 의미하였다. (유·옌 부쥘/이항재, 이병두 역, 『고조선』, 소나무, 1990, 140쪽) 또한 자연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요동’과 행정구역상의 개념인 ‘요동군’을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77) 『사기』권 110 ‘흉노열전’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78) 『사기』권 88 ‘몽염열전’ 築長城 …起臨洮至遼東

79)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50쪽.

그러면 고대 사서에서 말하고 있는 양평의 위치는 어느 곳인가? 양평은 요동 군에 속한 현이었는데 옛 양평성(襄平城)은 당(唐) 시기의 평주(平州) 노룡현(盧龍縣) 서남쪽에 있었다.⁸⁰⁾

당 시기의 평주 노룡현은 난하와 그 지류인 청룡하가 만나는 지점 동쪽에 있는 현재의 노룡과 같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장성의 동쪽 끝으로 기록된 ‘요동’ ‘양평’은 같은 지점이거나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⁸¹⁾

또한 이곳이 진의 2세 황제가 대신들을 보내 진시황의 공적을 새기고 오게 했다는 갈석산 부근인데, 사마천은 갈석산을 갔던 사실을 ‘요동에 갔다 돌아왔다’고 하였다. 이것은 갈석산이 진나라 때 요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⁸²⁾

송호정의 경우 만번한의 위치에 대해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만번한의 위치가 청천강변 박천이라는 이병도의 설과 요동으로 보는 두 가지 설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결론은 유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요동반도의 천산산맥(千山山脈) 일대까지를 연 장성의 동쪽 경계로 제멋대로 설정해놓고는 요동지역의 장성을 관리하던 중심지를 지금의 요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모두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중국학자의 연 장성론을 실재사실로⁸³⁾ 보고 하위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80) 『후한서』권74하, ‘원소유표열전’ 襄平縣 屬遼東郡 故城在今平州盧龍縣西南

81) 李秉斗, 「요동 · · · 현도군의 위치」, 201쪽 참조.

82) 『사기』권6, ‘진시황본기’ 春, 世東行郡縣, 李斯從, 到碣石, 並海, 南至會稽, 而盡刻始皇所立刻石, 石旁著大臣從者名, 以章先帝成功盛德焉: 皇帝曰: 「金石刻盡始皇帝所為也。今襲號而金石刻辭不稱始皇帝, 其於久遠也如後嗣為之者, 不稱成功盛德。」丞相臣斯、臣去疾、御史大夫臣德昧死言: 「臣請具刻詔書刻石, 因明白矣。臣昧死請。」制曰: 「可。」遂至遼東而還。

83) 馮永謙 · 何溥濤 編著, 1986 『遼寧古長城』, 遼寧人民出版社
遼寧省長城學會, 1996 『遼寧長城』, 瀋陽

그러면서도 송호정은 『위략』에 나오는 ‘진개에 빼앗긴 고조선의 땅 2천리’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후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요동으로부터 낙랑(대동강 유역)까지의 거리가 약 1,400여 리가 된다는 것 때문이다. 고조선이 (요하 동쪽의) 요동으로부터 2천리를 빼앗겼다면 연나라 진개는 대동강에 있었다는 낙랑을 지나 남쪽으로 600여리나 더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신기한 것은 이처럼 모든 논리가 파탄나도 결론은 늘 ‘대동강중심지설’로 귀착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송호정은 “『위략』의 수치는 고조선의 역사지리 문제를 고찰하는데 믿음직한 논증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다.”⁸⁴⁾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고정관념과 다르면 원 사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식민사학의 특기이기 때문이다. 송호정은 고조선의 서쪽 땅 2천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거리개념이 아닌 ‘매우 넓다는 의미로 보고 싶다’면서⁸⁵⁾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기원전 4~3세기 중국으로부터 철기문화가 전래되면서 요동지역도 연(燕)의 문화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된다. 고조선은 이 시기 언젠가 천산산맥 이남의 압록강과 청천강을 경계로 그 이남 지역을 배경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⁸⁶⁾면서 대동강중심설을 주창하고 있다. 압록강이면 압록강이고, 청천강이면 청천강이지 ‘압록강과 청천강을 경계로 그 이남 지역’이라니 두 강이 동서로 흐르지 않고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또한 송호정은 “한국식동검 등 조선 독자의 청동기가 출토하는 청천강 이남지역이 고조선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⁸⁷⁾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조선식동검이라고도 불리는 비파형동검 출토지는 산용이나 동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동강중심설을 주장하기 위해 ‘산용’, ‘동호’, ‘비파형동검’, ‘한국식동검’ 등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다. 중심지이동설이란 것

84) 송호정, 앞의 논문, 50쪽.

85) 위의 논문, 50쪽, 주, 93) 참조.

86) 위의 논문, 57쪽.

87) 위의 논문, 55쪽.

은 이처럼 대동강중심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사기(詐欺)학설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4. 맺음말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고조선의 실재를 밝히는 것만큼 중요하다. 고조선이 한반도 서북지역이 아닌 요동지역에 있다는 주장은 조선 초·중기부터 권람, 홍여하 등으로 부터 제기되었다. 이들은 고조선의 실재는 물론 그 위치를 요동지역이라고 보았다. 요동중심설은 조선 후기 이익, 박지원, 이규경 등 실학자들이 다시 주장했고 신채호, 최남선, 안재홍, 정인보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다시 유 엠 부쥘, 리지린, 윤내현, 이덕일 등에 의해 1차적 문헌 사료를 통해 체계화되었다.

한편 대동강중심설은 고조선의 도읍지가 대동강유역의 평양일대라는 견해인데, 이른바 ‘기자동래설’에서 시작된 것이다. 조선 시기 사대주의가 심화되고 소중화(小中華) 사상까지 생겨나면서 기자조선이 우리 역사의 시작이라는 주장과 함께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단군이나 고조선의 실재까지 의심하지는 않았다. 대동강중심설은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그들의 한국인 제자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는데, 한국사의 시작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논리가 깊숙이 개재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노골적으로 단군의 실재를 부정하고 한사군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보았다.

이러한 대동강중심설은 1차사료가 연구되고 고고학적 발굴이 속속 드러나면서 학문으로서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그러자 식민사학자들은 대동강중심설의 변형 논리로 중심지이동설을 착안해냈다. 중심지이동설은 고조선의 초기 도읍지는 만주지역이지만 연나라 장수 진개의 고조선 침략으로 기원전 4~3세기에는 한반도

평양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으로 대동강중심설이 화장만 다시 하고 나타난 것이다. 그 후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가 평양에 한사군 낙랑군을 설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1차 사료적 근거는 전무하다.

중심지이동설을 살펴보면, 모두 식민사학의 대동강중심설에서 일방적으로 주장되었던 논리들을 미리 전제하고 주장하는 변형 식민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의 위치를 오인한 『수경주(水經注)』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문헌사료적 근거가 없다보니까 ‘애하 하구의 기와편 명문’ ‘연·진 장성’ 따위의 고고학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들의 근거라는 것이 모두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학자들의 그것을 추종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1차사료적 근거가 없다 보니 거꾸로 ‘위치가 분명하다’, ‘축조된 장성의 유지로 보아야 한다’, ‘실물유적을 통해 확인되는 바이다.’ ‘역시 평양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순리이다’라는 따위의 비학문적인 논리로 근거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사료적 근거가 없는 ‘중심지이동설’은 허황된 것임은 물론 조선총독부의 ‘대동강중심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서 하루빨리 폐기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기』 「하본기」, 『조선열전』, 『홍노열전』, 『진시황본기』

『삼국사기』 「모본왕본기」, 『태조대왕본기』

『삼국유사』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수경』

『수경주』

『요사』 「지리지」

『한서』

『한서』 「지리지」

『후한서』 「원소유표열전」

김정배, 『고조선의 국가형성』, 『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97.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노태돈,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2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0.

리지린, 『고조선연구』(영인본), 열사람, 1989.

문정창, 『한국고대사연구 평』, 백문당, 1976.

서영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 시민강좌』제2집, 일조각, 1988.

송호정,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8, 2010.

송호정,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신채호, 『조선상고사』,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전집』상, 1972.

윤내현, 『한국고대사신문』, 일지사, 1986.

윤내현, 『한국고대사신문』, 일지사, 1986.

이병도, 『패수고』, 『청구학총』 제13호.

李秉斗, 『요동 현도군의 위치』, 백산학회편, 『고조선 · 부여사 연구』, 백산자료원, 1999.

정인보, 『조선사연구』, 서울신문사, 1947.

정인보, 『조선사연구』상(『담원정인보전집』3),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천관우, 『고조선사 · 삼한사 연구』, 일조각, 1989.

- 稻葉岩吉,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史學雜誌』 第 21篇 第2号
遼寧省長城學會, 『遼寧長城』, 瀋陽, 1996.
劉謙, 「遼東長城考查」, 『遼寧大學學報』 82 5, 1982.
李殿福, 「東北境內燕秦長城考」, 『黑龍江文物叢刊』 82 1, 1982.
曹汎, 「薊河尖古城和漢安平瓦當」, 『考古』, 1980.
馮永謙 · 何溥滢 編著, 『遼寧古長城』, 遼寧人民出版社, 1986.

[Abstract]

A Critical Review on the Relocation of the Center of Gojoseon

Kim, Byung-Gi

Making a study of the exact Gojoseon(古朝鮮) central area is a clue that will help us to grasp the facts of Old Choson. This classifies into three large groups; 1) A theory of a central area based on Taedong River(大同江). 2) A theory of a central place based on Liaodong (遼東, East of Liao River). 3) A theory of movement of Gojoseon central area.

The Japanese colonial historians emphasized a theory of a central area based on Taedong River to insist that the Korean history originated from the Chinese colony, which took root the majority opinions of the academic circles of the ancient Korean history. The theory of a central area based on Liaodong regards as the advocacy that the seat of Gojoseon government was located on Liaodong. This theory was claimed by the scholars of realistic school of Chosŏn such as Lee ik, Park jiwon, and the historians such as Shin chaeho, Jung inbo who was tinged with nationalism.

The theory of movement of central area, which is insisted in recent years, the central area in the early years was in Liaodon, but the areae was mov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asin of the Taedong River in the later days. The former theory of a central area based on Taedong River was investigated in the first historical records, and the archaeology excavation has been discovered so that the main-stream of academic circles takes notice of the theory of

movement of central area as a transformational theory. They use archaeological materials of ‘writing tiles of Aeha River(薨河)’, ‘Yonjin great-walls(燕秦長城)’ as a foundation. This way of thinking is closely followed in the opinion of the scholars who are carrying out ‘Tongbuk Poject(東北工程) of China.

Thus, the theory of movement of central area is merely a transformational logic in name only to maintain the theory of a central area based on Taedong River, which is enforced by the Chosŏn government-general(朝鮮總督府).

Key Words : Gojoseon, A theory of central area based on Taedong River, A theory of central area based on Liaodong(East of Liao River), A theory of movement of Gojoseon area, Yon chin great-walls